

# 한·중·일에 있어서의 학교 환경교육의 전개와 특색

스와 테츠오(訪哲郎)

학습원대학 교수, 한중일 환경교육 협의회 대표

## 요지:

한국, 중국, 일본의 학교환경교육은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각각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학교환경교육은, 공해교육과 자연교육의 통합의 결과로서 탄생하였고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2년부터 도입된 "총합적인 학습의 시간"에 의해 일본의 학교 환경교육은 활발화 되어 왔다.

중국의 학교환경교육은, 1970년대 중반에 고등교육기관에서 시작되었고 과학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국 환경선전교육 행동 강요(1996-2010년)"와 2003년에 내놓은 "중·소학생 환경교육 전제교육 대망"이, 중국의 학교 환경교육의 보급을 가속화시켜왔다. 또, 각지의 청소년 과학기술관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환경 NGO가 초중학교의 환경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학교환경교육의 현저한 특징은 "환경"이라고 하는 과목이 중학교의 선택 과목으로 있으며 1990년대 초에 "환경" 교과서가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각국의 학교환경교육은 각각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고 있다.

일본: ① 체계적인 교육이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학생이 적지 않다는 것.

② 학력저하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주요 교과목의 수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총합적인 학습의 시간"의 시간수가 삭감의 위협에 있다는 것.

중국: ①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상태에 격차가 크며 중국의 광대한 농촌지대의 많은 학교에서는 아직 환경교육이 시작되고 있지 않다.

② 중국인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으며 사회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이 널리 보급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① 중학교에 있어서의 선택 과목 "환경"의 채택율이 낮으므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학교 환경교육을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지도자를 많이 육성할 것이 요구된다.

본인이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일 환경교육협의회는 한국과 중국의 환경교육 NGO와 협력하여 2004년에 한중일의 환경교육의 우수한 사례를 집약한 환경교육의 교재 『한중일이 함께 배우는 환경』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출판했다.

이후는,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용의 지도서를 작성하고 환경교육의 지도자 육성의 촉진에 공헌하려고 한다.

"본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교육 학회지 18권 2호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